

공동육아교재 종합분석 첫 시도

“보육내용 획일화, 아동 요구 무시”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실무> 1, 2, 3권 분석 결과

공동보육이 확산되면서 널리 쓰이고 있는 공동육아교재가 지나치게 어른의 생각만을 담아 '아동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실내놀이에만 치중하거나 서구적 내용 지향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동육아연구회가 지난 11일 오후 이화여대 진관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영유아보육관계 교재 분석발표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삼성복지재단이 92년에 발간, 보급한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실무> 1, 2, 3권을 분석자료로 삼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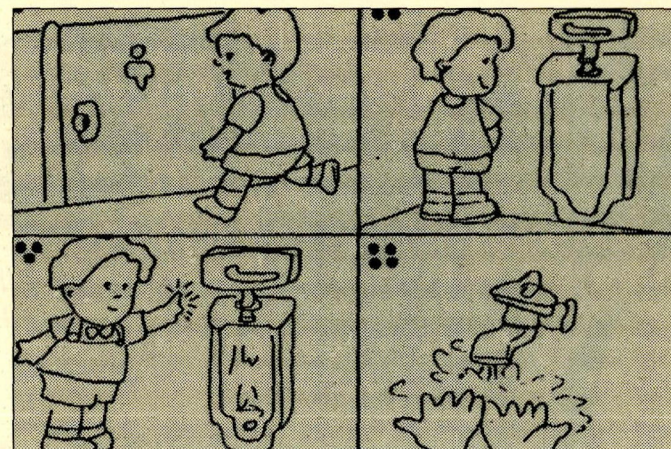
육아교재 분석자료로 이 프로그램집이 선택된 이유는 양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여타 놀이방 등의 보육내용과 보육수준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교육철학, 동요·

동화, 그림교재, 성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처음 시도,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안하면 죽는다’ 등 협박성 동화 많아

육아교재에 대한 분석에는 교육학자 이기범 교수(숙명여대), 여성학자 김정희 씨(이화여대 박사과정)를 비롯 현장에서 교재를 만들고 있는 강순옥 씨(보리출판사), 이주영 씨(어린이도서연구회), 이말순 씨(전해송아기둥지회 교사) 등이 참여, 종합적인 분석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재분석 발표회>에서 지적된 문제는 유아를 위한 동화분석의 경우 118편 가운데 60편 정도가 ‘괜찮은 동화’로 꼽혔을 뿐 나머지 절반가량인



▲문제점이 지적된 그림 '남아 화장실 기기'로 소변을 본 뒤 손씻는 장면에서 수도꼭지가 허공에 그려있는 점 등이 아동들의 시각교육에 문제를 던져준다는 분석이다.

58편은 '별의미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유아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거나 들려주면 정서교육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는 것.

문제점이 있는 동화로 <잘 먹지 않는 아이>는 어린이의

생활태도를 고치고 싶은 교훈성에 너무 치우쳐 어린이를 '협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 동화로 꼽혔고 2~3세용 동화 <작은 배 투투>는 놀면 나쁘고 일하면 좋다는 식으로 일과 놀이를 분리, 어

린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놀이를 빼앗으려는 어른들의 강요를 담고 있는 예로 지적됐다.

얼렁뚱땅 그려진 그림 정서교육 해끼칠 위험 커

한편 교재의 그림을 분석한 강순옥 씨도 교재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그림이 비례가 맞지 않거나 팔이 한쪽 없는 그림, 풀밭에서 불놀이를 하다 불을 냈는데 소방수들이 엉뚱하게 불난 집을 끄고 있는 그림들이 마구잡이로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를 위한 동요'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3곡중 창작곡은 51곡, 외국곡 27곡, 작자미상 30곡, 전래동요 5곡으로 외국곡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부분이 '미국곡'이었다는 것.

동요에서 역시 우리 것인 전래 놀이요에 무관심해 우리 감수성 키우기에 소홀했고 '성난 얼굴=미운얼굴' '싸우면 나쁜 아이'라는 식의 어른의 기준에 치우친 가사말들이 늘상 싸우고 지내는 아이들의 현실에서 솔직한 감정표현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실무>는 바깥놀이에 대한 비중이 1~2주에 한번 꼴로 너무 낮아 유아들에게 변화가

없고 지루한 느낌을 준다.

전업주부 핵가족 모델 위주 성역할 고정관념 깨는데 부족

공동육아교재를 '여성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김정희 씨는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제기된 요체인 맞벌이 부부 아동을 위한 특수성이 전혀 살려지지 않은 채 전업주부 핵가족을 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정관념을 깨려는 시도도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비중과 '효과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

여전히 병원놀이나 학예회에서 여아는 춤을 추고 남아는 태권도를 하거나 생일날 엄마는 수수팔떡을 해주고 아빠는 로봇을 사준다는 식의 얘기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이기범 교수는 '보육철학과 가치관분석'에서 '보육의 당사자인 아동의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로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어떤 성향과 가치관을 지닌 아이를 키울 것인지 불명확했다'며 서구중산층 문화지향, 일과 놀이의 분리, 자아와 세계관형성의 편향성, 환경과 공간, 자아세계에 대한 편협한 인식,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의 결여 등이 결과적으로 보육내용의 '획일화'에 머물고 있다고 종합평가.

공동육아연구회 정병호 박사(인류학, 서울대 비문화연구소)는 "공동육아교재 분석을 통해 보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끌어내고 싶었다"며 아동들의 실질적 요구를 살린 다양한 보육방식과 내용을 개발, 활용할 때 보육의 보편적 목표인 미래사회의 민주공중의 양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